

선수단 점검·상대팀 분석 '투트랙'... 흥명보호 월드컵 준비 '박차'

지난달 유럽 돌며 해외파 주요 멤버 관전 및 면담
A조서 상대할 유럽 PO 패스D·멕시코·남아공 대비
3월 28일 코트디부아르, 4월1일 오스트리아와 평가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는 가운데 흥명보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수단 점검과 상대팀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23회 월드컵이 한국 시간으로 오는 6월12일부터 7월20일까지 39일간 북중미 일대에서 펼쳐진다.

지난달 흥 감독은 김진규 코치, 김동진 코치와 2주간 유럽 곳곳을 돌며 해외파들을 점검했다.

먼저 영국 런던으로 향한 세 지도자는 엄지성(스완지), 배준호(스토크), 양민혁(코번트리)의 경기를 관전했다.

이후 백승호(버밍엄), 전진우(옥스퍼드), 황희찬(울버햄튼)까지 더해 영국에서 활약하는 코리안리거 6명과 한 자리에서 만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 뒤셀도르프로 이동한 뒤에는 축구 대표팀 부주장 이재성(마인츠)과 혼혈 태극전사 엔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를 면담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을, 독일에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를 만난 뒤 프랑스로 이동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도 점검했다.

일정상 만나지 못한 조규성, 이한범(이상 미트윌란), 이태석(빈), 이현주(아로카), 양현준(셀틱) 등은 포르투갈 코치진들이 대신했다.

흥 감독은 "여러 외부 상황으로 월드컵이 개막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대표팀은 그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출장을 통해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며 "대회 개막까지 전 스태프와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월드컵 조 추첨 이후부터 시작된 상대팀 분석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 편성,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뒀다.

유럽 PO 패스 D 승자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중 하나를 내달 1일 최종 결정된다.

개막 두 달 전에서야 상대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라 네 팀 모두를 염두에 두고 분



석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대할 멕시코와는 지난해 9월 평가전에서 맞붙어 2-2로 비긴 바 있다.

그러나 평가전과 월드컵 본선은 분명

다르다. 특히 멕시코는 개최국 이점을 안고 있어 흥명보호의 경계 대상 1호로 꼽힌다.

마지막 남아공은 지난 1월에 열린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분석관을 파견하면서 대비했다.

조별리그에선 포백, 16강에선 스리백을 활용하며 전술적인 유연함을 시도했지만 4경기 6실점을 범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다. 흥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1-1 무), 알제리(2-4 패), 벨기에(0-1

패)와 겨뤘 무승으로 탈락한 아픔을 갖고 있다.

당시 상대 분석에 실패했던 점을 교훈 삼아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정보전에 더 큰 힘을 쏟는다.

실전과 같은 평가전도 마련됐다. 흥 감독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의 코리아풋볼파크 스타디움에서 3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에 뭉치는 축구대표팀은 23일 인천국제공항에 소집

돼 비행길에 오른다.

한국은 28일 오후 11시 영국 밀턴 킨스의 스타디움 MK에서 코트디부아르, 4월1일 오전 3시45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움에서 오스트리아와 격돌한다.

코트디부아르는 남아공, 오스트리아는 유럽 PO 패스D 승자를 대비하기 위한 스파링 상대로, 두 팀 모두 유럽 빅리거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소중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NO.1 BRAND |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 원스톱 도보 학세권 |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 다채로운 커뮤니티 | 쾌적한 에코라이프 |
|-------------------------|--------------------|-----------------------------------|--|--|---------------------------------------|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무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무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40대에 WBC 데뷔전... '깜짝 등판' 노경은 "긴장보단 들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등장해 기대 이상의 공을 던졌다. 40대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데뷔전을 치른 '베테랑 불펜' 노경은(SSG 랜더스)이 새로운 도전에 설렘을 드러냈다.

노경은은 지난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첫 경기 체코전에 한국 대표팀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앞서 류지현 야구 대표팀 감독은 체코전 선발 투수로 소형준(KT 위즈)을 예고했고, 그를 이어 정우주(한화 이글스)가 마운드에 오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계획을 깨고 이날 경기 4회에는 노경은이 등판했다.

노경은은 경기 초반부터 등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경은은 이날 불펜에서 가장 먼저 몸을 풀었다.

이날 경기 후 취재진을 만난 노경은은 "갑자기 들어간 것은 아니고, 초반에 (소)형준이가 주자를 쌓을 때부터 대기하고 있었다. 중심 타선이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기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노경은은 "혹시 모르니까 제일 먼저 준비했다. 우주가 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위에서 지시가 떨어진 대로 하는 게 편하다"며 "형준이가 던질 때 전화가 와서 몸을 풀라고 하길래 '내가 먼저 나가나보다' 생

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경은은 4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뒤 정우주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첫 상대였던 마르틴 체르빈카를 공 3개로 땅볼 아웃시킨 그는 상대 중심타선인 마르코 흘름, 마르틴 무지크에게 연속 안타와 도루를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노경은은 1사 1, 3루에 보이테흐 멘시크를 3구삼진으로 잡으며 한숨을 돌렸고, 윌리엄 에스칼라를 초구만에 뜬공 처리하며 노련하게 위기를 넘겼다.

노경은은 "(WBC 데뷔전인데) 긴장되기 보다는 좀 들떴던 것 같다. 그래서 공도 잘

던졌던 것 같다. 마운드에선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담과 욕심은 내려놔야 했다. 노경은은 "등판할 때는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하늘에 맡기자고 생각하고 던졌다. 어차피 리드도 여유 있어서 부담감도 없었고, 편하게 던지다 보니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며 싱긋 웃었다.

그는 "지금 몸 상태는 딱 좋다. 아까 구속 148km가 나온 것을 보고 '이제 됐구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노경은은 "(WBC 데뷔전인데) 긴장되기 보다는 좀 들떴던 것 같다. 그래서 공도 잘

던졌던 것 같다. 마운드에선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담과 욕심은 내려놔야 했다. 노경은은 "등판할 때는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하늘에 맡기자고 생각하고 던졌다. 어차피 리드도 여유 있어서 부담감도 없었고, 편하게 던지다 보니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며 싱긋 웃었다.

그는 "지금 몸 상태는 딱 좋다. 아까 구속 148km가 나온 것을 보고 '이제 됐구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노경은은 "(WBC 데뷔전인데) 긴장되기 보다는 좀 들떴던 것 같다. 그래서 공도 잘

던졌던 것 같다. 마운드에선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담과 욕심은 내려놔야 했다. 노경은은 "등판할 때는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하늘에 맡기자고 생각하고 던졌다. 어차피 리드도 여유 있어서 부담감도 없었고, 편하게 던지다 보니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며 싱긋 웃었다.

그는 "지금 몸 상태는 딱 좋다. 아까 구속 148km가 나온 것을 보고 '이제 됐구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노경은은 "(WBC 데뷔전인데) 긴장되기 보다는 좀 들떴던 것 같다. 그래서 공도 잘

던졌던 것 같다. 마운드에선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주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12일 개관식

총사업비 680억 원 투입... 전국 혁신도시 최대 규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체육, 소통 거점 공간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총사업비 680억 원(국비 190억 원, 전남도 50억 원, 광주광역시 50억 원, 시비 390억 원)을 투입했고 2023년 3월에 착공을 시작해 2025년 11월 준공했으며 현재 개관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4475㎡(약 1353평), 연면적 2만 1091㎡

(약 6380평) 규모로 조성됐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전시실), 세미나실, 휴게라운지, 청년창업공간,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춘놀이터 등을 갖춘 전국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 시설이다.

개관식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4층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천공공기관, 기관 사회단체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행사 이후 시설별로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

전시실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나현' 작가의 설치미술 특별전이 3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리고 휴게라운지와 청년창업공간, 평생학습관도 개관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은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 무료 운영을 실시해 시설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춘놀이터는 인터리어 공사 완료 후 4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시설별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나주시 빛가람복합시설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